투트랙 방식 하나님 벌기

(스바냐 1장 1절~18절)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지라
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투트랙 방식 하나님 벌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투트랙 방식 하나님 벌기'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면 요엘이나 아모스에서 등장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며 예언의 핵심 부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셔서 개입하시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항상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의 그룹이 생겨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들의 그룹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역사 최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만 지금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면 75억 명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여호와의 날이라 일컫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관심의 대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때는 곁에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금이야 옥이야 키운 자녀에게도 관심할 수 없습니다. 당장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도 사업에 관심을 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빨아들이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예언한 시대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은 아니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나 남 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 날 혹은 포로생활이 끝나고 이방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부터 해방되는 때와 같이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써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 왕국 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고손자입니다. BC.622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활동했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와 활동시기가 비슷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선민의 신앙 상태를 점검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 BC.586년까지는 아직 몇 십 년이 남아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특성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듣는 사람 중에는 미처 유다의 멸망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항상 의미를 지닐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산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시고 유일한 관심의 대상이 되시는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지는 마음에 하나님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관성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계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사는 동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번 잔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관심을 둔 적이 없이 오직 세상에 관심을 쏟았다면 하나님 잔고는 제로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잔고가 기준이 되어서 제로인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고 하나님 잔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제목에서 '투트랙 방식 하나님 벌기'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투트랙으로 하나님 벌기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트랙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 투트랙 하나님 벌기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 직장, 학교 등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인정했느냐가 하나님 벌기의 잔고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바로 투트랙 벌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벌고 하나님의 잔고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이자 아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55년 통치와 아몬 왕의 2년 통치 기간의 남 왕국 유다는 어떤 나라보다 우상숭배가 극성하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 잔고가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만 관심하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들을 진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벌어들인 잔고가 제로인 사람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나 재벌들이나 학자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번 잔고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가치 없는 쓰레기로 여기십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본문 말씀이 드러내는 사람의 판단기준입니다. 겉으로는 금광처럼 보였지만 흙더미에 불과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번 잔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 또한 피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잔고가 없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피조세계 전체 또한 쓸어버리고 진멸시키기에 마땅한 쓰레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이고 가치관입니다.

오늘 본문은 투트랙 벌기가 필요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벌어놓은 상태가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4~6절까지를 살펴보면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는 심판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벌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는 풍요와 다산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일월성신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늘의 뭇별과 해와 달이 이 세상의 일을 주관하여 형통하게 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말감에 대한 숭배도 이와 같았습니다. 선민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풍요와 다산과 형통을 쫓는 동안 하나님 잔고는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좋으심은 어떻게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세상 일이 부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고백은 단순히 말로 읊조리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양을 쳤던 목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입으로 하나님이 목자라고 백번을 말해봤자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

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양은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갖지 않고 오직 목자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고백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죽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죽을 때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거짓말에 불과하고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번제의 어린양으로써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고백은 진실할 수 없고 하나님 벌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좋다고 여겨진다면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돈에 대해서 죽고 건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돈에 대해 죽는다고 해서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건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체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보고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과 금으로 마음의 좋음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진대 하나님의 좋으심 앞에서는 배우자는 물론이요 자녀의 형통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고백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좋으심이 확인되는 날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세상의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며 예언을 한 이유는 이를 통해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의도였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다면 실제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벌어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찌꺼기 같이 가라앉았다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들의 찌꺼기 위에 응고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얻은 모든 것들은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벌의 모든 성취를 찌꺼기로 여기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세상 것들을 붙잡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잔고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찌꺼기로 여겨져 멸절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투트랙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나가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는 것일까요? 물론 고백은 필요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시장이든 학교에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 대한 반응의 순간에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고 백합화 한 송이 피는 것까지 주관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일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나의 주체성을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이 장갑으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봅니다. 아담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대상들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아담을 장갑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써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며 사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

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일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반응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도원이나 수련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할 곳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동기들끼리 승진을 놓고 경쟁하는 직장에서, 한푼 두푼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시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일들에 반응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좋으심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트랙입니다. 또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트랙입니다. 이 투트랙의 하나님 벌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상태를 나의 현실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좋음에 관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련해서도 내가 죽는 것만이 현실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만이 현실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실들은 모두 나중이고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집할 때에 하나님의 좋으심과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던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최우선이고 유일한 현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투트랙 하나님 벌기에 성공적인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 좋으심을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